

‘반값등록금’ 정치권 갈팡질팡

與 경선비용 인플레... ‘錢大’ 우려

대의원수 대폭 늘고 예비후보 기탁금도 상향

한나라당의 7·4 전당대회는 참여하는 대의원 수가 크게 늘면서 선거비용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예비후보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당 관계자는 12일 “이번 전당은 선거인단이 기존 1만명에서 21만명으로 늘어나 후보 기탁금과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난해보다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14 전당대회 선거비용이 3배 이상 소요돼 후보 1인당 선거비용이 최소 5억원 최대 수십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당 후보 기탁금이 기존 8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 가까이 상향 조정될 것이라는 예측이 무성하다.

후보들의 개별 선거비용의 경우 대의원들에게 보내는 문자·음성메시지만 해도 지난해 7·14 전당에서는 한 번에 1만여건을 보내면 됐지만 올해는 21만여건으로 늘어 큰 부담이다. 특히 최근 물가상승을 감안할 경우 선거비용이 지난해보다 훨씬 늘어날 것이 확실시된다.

수도권 지역의 한 의원은 “전대에 출마하고 싶은 후보자들은 기탁금을 비롯해 선거비용 부담으로 주저하게 되거나 전대를 앞두고 출마를 포기하는 사례도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지난 10일 ‘7·4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에 김수환

상임고문을 선임하고 선관위 산하에 클린선거추진, 투개표선거관리소위, 선거인단소위 등 3개 소위를 구성했다.

정희수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선거인단은 21만명으로 하되, 전대 대의원은 정기 대의원을 그대로 인정키로 하고 당원 선거인단은 오는 13일 추첨을 통해 선정할 예정”이라며 “오는 20일 선거인단 명부를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

1만명으로 구성된 청년 선거인단은 지난 8일부터 모집을 시작해 3300여명이 접수했으며, 오는 14일 까지 청년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당협별 추첨을 통해 확정할 것이라고 정 총장 직무대행은 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대학등록금 경감을 위한 여야의 정책 경쟁이 가열되면서 정치권은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들로 흥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여야 모두 재원 대책 등 면밀한 청사진 없이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 “매년 10%씩 낮춰 연간 350만원으로”

민주 “국공립대·사립대 동시 반값 수준 인하”

선진당·민노당 “포퓰리즘 극치... 협의체 필요”

한나라당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민주당은 12일 국공립대부터 반값 등록금을 적용하던 기존 입장을 바꿔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등록금 인하를 동시에 추진기로 했다. 대학생 등록금은 당초 방침대로 내년 새 학기부터 고지서상 금액의 50% 수준으로 인하하고, 이를 위해 국공립대는 일반회계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사립대에 대해서는 대학 구조조정과의 연계로 전제로 교부금을 신설해 내국세를 투입하는 방안을 강구기로 했다.

민주당은 13일 정책 위원회에서 반값등록금 관련 당론을 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반값등록금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내국세의 4% 수준인 연간 6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면서 관련 재원 확보 방안으로 이명박 정부의 추가감세 계획 회의를 제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자유선진당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등록금 대책을 ‘포퓰리즘의 극치’라고 비판하며 여·야, 정부, 학계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선진당은 등록금 인하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정부의 대학자율화 조치로 부실 대학이 급증해 등록금 인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최근 ‘정부책임 등록금제 도입을 위한 5대 입법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다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대학 교육을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그 내용의 골자다. 또 사립대학이 등록금을 적립금화하는 것이 높은 등록금의 한 원인이라며 규제법을 제출해놓은 상태다.

◇한나라당=등록금 인하, 장학금 제도 확대,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ICL) 개선 등 3개 방향으로 등록금 부담 경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처음에는 소득 하위 50%에 대한 국가 장학금 차등 지원안이 검토됐으나 현재는 고지서에 적히는 실제 등록금 액수 자체를 낮추는 쪽에 비중이 실리고 있다. 당 지도부는 등록금을 매년 10%씩 인하, 연간 350만원 안팎 수준으로까지 낮추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등록금 경감을 실현할 세밀한 처방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국가장학금 제도를 활성화하고, 대학 구조조정을 병행하며, 법을 개정해 대학들의 적립금을 등록금 인하에 활용토록 하는 방안 등이 모호하게 거론될 뿐이다.

당 정책위원회는 금주 국민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들어서 이달 중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원과 관련해서는 매년 수조에 달하는 세수 여유분의 일부를 등록금 지원 예산으로 사용한다는 원칙에서 더 진

전된 게 없다.

◇민주당=올해 초부터 무상복지 시리즈와 함께 반값등록금 실현을 주장해 왔다. 그러다 한나라당이 등록금 완화 방안을 제시하며 ‘친서민 행보’에 속도를 내자 기존 정책보다 지원 폭을 넓히고 시행시기를 앞당기며 진전된 게 없다.

반값등록금 대책 논의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값등록금 대책 논의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사법개혁’ 총체적 위기

오늘 5인회의...민주 “중수부 폐지 없이 비쟁점만 처리 불가”

국회의 ‘사법개혁’이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대검 중수부 폐지안이 표류하고 있는데다 상대적으로 여야의 의견대립이 심한 비(非)쟁점 사안도 난항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한나라당은 중수부 폐지안 등을 제외한 비쟁점 사안에 대해 6월 국회에서 우선 입법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13일 열리는 사법특위 5인 회의에서 합의를 도출, 15일과 17일 전체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한 뒤 20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논의는 가능하나 중수부 폐지 등 핵심 합의의 처리가 전제되지 않는 한 비쟁점 사안 처리에는 동의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검 중수부 폐지, 검·경 수사권 조정, 특수수사청 신설 등 알맹이를 빼 놓고 비쟁점 사안들만 먼저 처리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3일부터 열리는 국회 사법특위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설전

이 벌어지는 등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여야의 기존 합의안에는 2020년부터 10년 이상 경력지만 법관에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계획과 로-클럭(law clerk) 제도의 2012년 도입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법원과 관련해 ▲법관인사제도 개선 ▲판결서, 증거목록 공개 등이 합의됐다. 검찰과 관련해서는 ▲재정신청대상에 피의사실 공표죄 고발 사건 포함 ▲기소검사실명제 ▲수

사목록작성 의무화 ▲사면심사위원회와 가석방심사위원회 명칭 및 경력 사항 공개 ▲피의사실 공표죄 적용 대상에 변호사 제외 등도 이견이 없는 상태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비쟁점 사안의 우선 처리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6월 임시국회 처리는 무산될 공산이 크다.

비쟁점 사안들이 사법특위에서 처리되더라도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 판문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회 사법특위에서 중수부 폐지 대신 특수수사청 신설에 합의하는 쪽으로 접점을 찾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나라 의석수 170석 붕괴 초읽기

공성진·현경병 의원직 상실... 김효재 의원 사퇴면 169석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이어지면서 170석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나라당 의석수는 지난 2008년 4월 18대 총선 직후 과반을 조금 넘긴 153석이였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친박(친박근혜)계 인사 및 일

부 무소속 의원이 복당해 의석수가 172석으로 늘었고 이후에는 170석에서 등락을 거듭했다. 또 지난해 7·28 재보선에서는 5석을 확보해 172석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공성진·현경병 의원이 지난 9~10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

은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잃으면서 172석이 170석으로 줄어들었다.

한 당직자는 12일 “청와대 신임 정무수석으로 내정된 한나라당 김효재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면 한나라당 의석수는 조만간 169석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말 정식으로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도 ‘경선 룰’ 쟁점 부상

정동영 “100% 국민경선” 정세균 “당원중심”

방식 놓고 당내 계파간 미묘한 신경전 벌어

민주당 개혁특위가 오는 17일부터 24일까지 개혁안 조문화 작업을 마치고 27일 최고위원회의 상정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경선 룰을 둘러싸고 당내 계파 간의 미묘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경선 방식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차기 당권의 향배는 물론 국회의원 공천, 대선 후보경선 등에서 정파 간의 유·불리가 엇갈릴기 때문이다.

우선 민주당 ‘빅3’ 가운데 정동영 최고위원이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는 지난 8일 개혁특위 위원 전원에게 편지를 보내 “완전 국민경선제는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 개혁 취지에 맞고 본선 경쟁

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 국회의원 후보를 100% 국민 투표로 뽑자고 제안했다.

즉, 개혁특위가 제시하고 있는 ‘당원 3분의 1+국민 3분의 1+배심원 3분의 1’ 안에서 당원과 배심원 부분은 빼자는 것이다. 또한, 개혁 특위가 내놓은 대선후보 경선안(당원 30%+국민 70%)도 100% 국민 투표로 진행하자는 입장이다.

정 최고위원이 이같은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바닥 담심이나 국민 참여를 조직해 내는 능력이 강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당내 조직력이 강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정세균 최고위원측은

지역 국회의원 후보 선출을 당비를 내는 당원을 중심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입장이다.

당비 당원들을 중심으로 선거인단 경선을 진행하되 필요에 따라 여론조사나 배심원 평가 등을 일부 가미하고 대선 후보 경선방식은 야권 연대 등을 염두에 두고 천천히 논의해야 한다는 기류다.

순환규 대표 측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다만 야권의 대선 후보 가운데 지지율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경선에 다수가 참여하는 방안 대해 반대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 범위를 어느 정도 확대할지는 효과 등을 감안,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있다.

한편, 당내 일각에서는 ‘슈퍼스타 K’ 방식 도입과 30세 이하 청년 비례대표제 도입 등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로 만만치 않아 오는 17일 열리는 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는 상당한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대인동심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점 포가 할 형성되어 월세가 다 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 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AX)223-1772 (TEL)011-602-2532 (광주광역시 남구, 대인동, 소안리, 한남동)

나라공인중개사

펜션텔 매도

전북순창군 북흥면 대방리 펜션텔 2007년준공

- 대 지 : 10980㎡, 원아 : 13937㎡
- 케모마일 23평형 3개동, 케모마일10평형17개동 관리동1,각각 독채형식 주차장원비, 수려한경치,수원원,기도원적합 여유대지많은,계곡있음
- 매매가 : 13억(근저당2억9천호환) • 실투자금 : 11억1천

모텔매도

전라남도 여수시 율산면 월산리 • 대지 : 1038㎡, 건물1095㎡

- 지하1층지상4층 객실 : 297개 엘리베이터 있음 율산산단입구
- 2012 여수세계박람회 숙박업 지정업소
- 매매가 : 10억(근저당3억6천대출승계가능) • 실투자금 : 6억4천

토지매매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한국아메리움후문부근 코너

- 대 지 : 262㎡ 제2종일반주거지역 원룸,빌라,점포형주택 적합
- 매매가 : 1억5천만

토지매매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북광주IC 부근 생산녹지

- 담 : 1425㎡ 투자적합 도로있음 영산강변 경치좋은
- 매매가 : 2억2천5백만

토지매매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 일동초교부근

- 대 지 : 210㎡ 제2종일반주거지역 코너 원룸,빌라 적합
- 매매가 : 1억3천만

과수원매매

전라남도 곡성군 북사동면 신전리

- 전.담 : 9150㎡ 계획관리지역 배나무 15~20년생 2000주이상
- 지대가 높아 과실당도 아주 좋음
- 매매가 : 1억3천5백만

토지매매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평지리

- 공장용지및잡종지 : 8480㎡ 공장부지 : 3192㎡의 잡종지
- 담양육과방면2차선 도로점 4차선도로 계획있음
- 매매가 : 6억4천만

대표전화 ☎511-6633

핸드폰 : 010-6522-7731 FAX : 512-4589

신진공인중개사 (임대전문)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 매매

- ▶ 산월IC 교통광장 접 코너
- ▶ 면적: 700평, 1350평 분할가 광고하고 최고!!
- ▶ 매매가격 : 협의후 결정

화순 북면 수련원,요양원,기도원 부지 매매

- ▶ 임야: 47000평, 단층건물: 250평 (5동)
- ▶ 단지내 도로개설된 소나무, 산악초 재배단지
- ▶ 매매가격 : 협의후 결정

남구 송하동 토지매매

- ▶ 대 지 : 1500평(6차선 도로점)(700평)
- ▶ 자연녹지 : 700평 ▶ 일반공업지역 : 800평
- ▶ 매매가격 : 협의후 결정

북구 동림동 공장(창고)급매

- ▶ 대 지 : 538평, 680평, 1000평
- ▶ 건 물 : 300평, 200평, 200평
- ▶ 높 이 : 8.9, 10.9m
- ▶ 호이스트 : 유, 유, 유
- ▶ 매매가격 : 협의후결정

문의: ☎ 016-644-4265, FAX.523-8558

부실채권 (못받은돈) 회수대행전문

대여금·거대대금· 개인차용금·공증·판결문· 각종못받은돈

선수금없음, 후불제(착수금)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수수료(회수 금액의 30%이내), 재산조사, 신용조사가능

- ◎ 텔레마케터 수시모집(여) (아르바이트·시간제가능·연령무관)
- ◎ 추심직, 계약상담직원 (광주·전남·전북 센터장 모집)

★ 소중한 재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

새한신용정보(주)

062)232-7770, 010-4608-6061 (담당 : 김정수)

남성 성기능강화제

본제품은 왕라, 복분자, 구기자, 같은 등 20여가지의 한약재로 제조하였으며, 특히 왕라는 허브의 일종으로 자양강장역할을 하여 다미아나 혈관과 호르몬계의 도움이 된다. 단백질을 저장하는 힘을 돕고 근육을 강하게 해준다는 류큐나프리언스를 주성분으로 하여 원활히 공급함으로써 당신의 자존심을 지켜줍니다.

섭취방법 및 제품특징

- 평소에 밝기는 되나 지속성이 없거나 조루가 있는 분들은 성관계 전 약 2-3시간전에 1정을 섭취하면 1-5일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 발기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분들은 1일 4정을 3-7일 정도를 연속으로 섭취 하시면 발기가 잘됩니다.

섭취이 필요없습니다. 직접 드셔보시고 확인하세요.

문의 전화 **010-7770-8138** 주문즉시택배 무료배송

농협 302-0136-6325-61 권옥연